

2016년 10월 25일

# 투자전략 Daily

• 파생/ETF 전략

11월 MSCI 변경 예상, 삼성 바이오 조기편입 시나리오

• 중화권 증시 동향

18기 6중전화 개막, 중화권 증시 강세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에스에너지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이마트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인터넷, 하나금융지주, 코스맥스, 한글과컴퓨터, 롯데제과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자산배분전략 | 노근환 ☎ 3276-6226  
투 자 전 략 | 박소연 ☎ 3276-6176  
시 황 분 석 | 김대준 ☎ 3276-6247  
계 량 분 석 | 안 혁 ☎ 3276-6272  
파 생 / ETF | 강승철 ☎ 3276-6181  
스 몰 캡 전략 | 정훈석 ☎ 3276-6232  
이 머 징 마 케 트 | 윤항진 ☎ 3276-6280  
중 국 시 장 | 최설화 ☎ 3276-6274  
경 제 분 석 | 박정우 ☎ 3276-6229  
채 권 분 석 | 오창섭 ☎ 3276-6174  
해 외 채 권 | 박승진 ☎ 3276-6560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원 자 재 | 서태중 ☎ 3276-6184

#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0/18(화)	10/19(수)	10/20(목)	10/21(금)	10/24(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40.43	2,040.94	2,040.60	2,033.00	2,047.74	
	등락폭	12.82	0.51	-0.34	-7.6	14.74	
	등락종목	상승(상한)	431(1)	360(2)	329(2)	279(1)	386(1)
		하락(하한)	366(0)	432(0)	475(0)	529(0)	429(0)
	ADR	92.96	89.47	86.87	81.68	79.44	
	이격도	10 일	100.02	100.10	100.21	99.94	100.70
		20 일	99.79	99.77	99.75	99.41	100.15
	투자심리	60	70	60	60	60	
	거래량	(백만 주)	306	322	276	260	249
	거래대금	(십억 원)	3,906	4,098	3,955	3,490	3,452
코스닥	코스닥지수	660.29	661.26	655.68	651.77	647.88	
	등락폭	0.46	0.97	-5.58	-3.91	-3.89	
	등락종목	상승(상한)	432(0)	497(0)	329(1)	387(1)	412(2)
		하락(하한)	642(2)	583(0)	763(0)	699(0)	670(0)
	ADR	95.87	96.06	95.31	94.80	94.29	
	이격도	10 일	98.42	98.92	98.51	98.27	98.08
		20 일	97.43	97.67	97.01	96.67	96.38
	투자심리	20	30	30	30	30	
	거래량	(백만 주)	524	528	556	507	557
	거래대금	(십억 원)	2,734	2,595	2,949	2,935	2,941

##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486.4	1,085.1	859.2	344.3	67.7	132.3	74.5	5.3	235.1	26.4
	매도	1,722.5	994.8	700.6	192.7	71.4	122.2	60.0	13.7	240.6	39.1
	순매수	-236.2	90.3	158.6	151.6	-3.8	10.2	14.6	-8.5	-5.5	-12.7
	10월 누계	-717.8	548.7	93.5	94.9	44.1	-140.9	116.8	-31.9	10.5	75.5
	16년 누계	-6,009.9	10,330.0	-7,756.8	-2,044.4	751.6	-5,723.7	-882.1	-1,003.8	1,146.0	3,436.5
코스닥	매수	2,706.1	153.9	71.9	26.9	4.4	14.2	8.5	1.1	16.8	16.4
	매도	2,670.0	162.8	99.1	24.3	7.6	24.0	11.4	3.5	28.3	16.3
	순매수	36.0	-8.9	-27.2	2.5	-3.1	-9.9	-2.9	-2.4	-11.5	0.0
	10월 누계	644.1	-139.2	-418.2	-42.4	-36.4	-155.2	-61.9	-11.5	-110.9	-86.7
	16년 누계	5,783.0	763.3	-4,559.0	-608.3	-309.8	-1,564.7	-675.0	-158.4	-1,242.9	-1,987.2

## 11월 MSCI 변경 예상, 삼성 바이오 조기편입 시나리오

2016년 Target KOSPI	2,180pt
12MF PER	10.40배
12MF PBR	0.94배
Yield Gap	8.2%P

- ▶ 11월 15일, MSCI 반기 리뷰 결과 발표. 한화테크윈, MSCI 지수 신규편입 예상
- ▶ 패시브 매입수요 큰 편으로 추정, 지수 편입을 노린 매수 전략 유효
- ▶ 11월의 또 다른 이벤트, 삼성 바이오 증시 상장. 주요지수 조기편입 가능성 점검

### 11월 MSCI 반기 리뷰 한화테크윈 신규편입 예상

#### ■ 11월 MSCI 반기 리뷰 – 한화테크윈 신규 편입 예상

한국시간 11월 15일 아침(현지시간 14일)에 MSCI의 반기(Semi-Annual) 리뷰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MSCI는 1년에 2번 반기 리뷰(5월, 11월)와 2번 분기 리뷰(2월, 8월) 등 총 4차례 지수 편입종목을 변경한다. 이번 11월 반기 리뷰 결과에 따른 실제 종목 교체는 11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올해 2월과 8월 분기 리뷰에서는 한국(MSCI Korea)에서 신규편입, 제외 종목이 없었다. 5월 반기 리뷰에서는 LG생활건강 우선주(A051905)가 MSCI 한국지수에 신규 편입됐고, 두산(A000150)이 제외된 바 있다.

이번 11월 리뷰에서 한화테크윈(A012450)이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차순위로 만도, 메디투스 등의 편입 가능성이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mid-low) 판단된다. 기존 편입종목 중 제외 종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가총액 순으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파라다이스다. 하지만 역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MSCI Korea 지수 11월 반기리뷰 예상

구분	코드	종목	시가총액(10/21, 억원)	가능성(possibility)
신규편입 예상	A012450	한화테크윈	35,703	High
	A204320	만도	23,479	mid-low
	A086900	메디투스	22,202	mid-low
제외 예상	A034230	파라다이스	12,596	mid-low

자료: 한국투자증권

<표 2> MSCI Korea 지수 과거 종목변경 History

	편입종목	제외종목
2011년 2월	없음	없음
2011년 5월	현대하이스코, 현대위아, 금호석유, 케이피케미칼	동양증권, SK브로드밴드, LG전자우
2011년 8월	없음	없음
2011년 11월	CJ, 현대해상, 오리온, 한국항공우주	서울반도체, 한진중공업, 한진해운
2012년 2월	없음	없음
2012년 5월	없음	없음
2012년 8월	아모레G	STX팬오션
2012년 11월	제일기획	동국제강, KP케미칼
2013년 2월	없음	없음
2013년 5월	한라비스테온공조, 하이트진로	만도
2013년 8월	없음	없음
2013년 11월	없음	없음
2014년 2월	없음	없음
2014년 5월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현대증권, NHN엔터테인먼트
2014년 8월	없음	없음
2014년 11월	CJ대한통운, 다음, 한전KPS, (삼성SDS_특례편입)	삼성테크윈
2015년 2월	한샘	삼성엔지니어링
2015년 5월	아모레퍼시픽우, 한미약품	하이트진로
2015년 8월	BGF리테일, 동서, 한미사이언스	현대미포조선, LS
2015년 11월	GS리테일, 오투기, CJ E&M, 롯데칠성	대우조선해양, 현대상선, 두산인프라코어, LS산전
2016년 2월	없음	없음
2016년 5월	LG생활건강우	두산
2016년 8월	없음	없음

자료: MSCI, 한국투자증권

아래 <표 3, 4>는 2015년 이후 MSCI 지수 신규 편입종목의 구간별 시장 대비 수익률을 정리한 것이다. 2015년 이후 5번의 사례에서 신규 편입 종목은 발표일부터 실제 편입일까지 평균 +5.8%p의 시장 대비 초과수익을 기록했다. 2010년 이후부터로 범위를 넓히면 같은 구간에서 초과수익은 평균 +5.3%p로 비슷했다.

11월에는 미국 대선과 12월 미국 FOMC를 앞두고 시장 전체적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MSCI 지수 리밸런싱 같은 이벤트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10월에 KOSPI200 신규편입으로 주가가 상승한 현대해상(A001450) 사례 때문에 이벤트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도 높은 편이다. MSCI 지수 편입을 노리고 한화테크윈을 미리 사는 전략으로 알파를 거둘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다.

## 파생/ETF 전략

〈표 3〉 신규 편입종목의 구간별 시장 대비 수익률 - 2015년 이후

2015년 2월

편입 종목						
코드	종목명	발표당일	편입당일	발표일~편입일	편입+10일	편입+30일
A009240	한샘	1.2%	-1.3%	12.5%	-2.9%	-1.4%

2015년 5월

편입 종목						
코드	종목명	발표당일	편입당일	발표일~편입일	편입+10일	편입+30일
A090435	아모레퍼시픽우	7.5%	-3.1%	18.2%	-7.6%	-3.2%
A128940	한미약품	7.5%	-4.6%	3.6%	9.1%	17.2%

2015년 8월

편입 종목						
코드	종목명	발표당일	편입당일	발표일~편입일	편입+10일	편입+30일
A027410	BGF리테일	-10.1%	-1.9%	-5.2%	-11.2%	-0.8%
A026960	동서	6.1%	1.0%	12.0%	-8.5%	-16.8%
A008930	한미사이언스	-2.3%	7.9%	11.0%	-18.9%	-14.2%

2015년 11월

편입 종목						
코드	종목명	발표당일	편입당일	발표일~편입일	편입+10일	편입+30일
A007070	GS리테일	-6.7%	2.2%	-3.1%	-4.7%	-1.0%
A007310	오뚜기	-2.4%	-0.1%	0.2%	5.7%	19.2%
A130960	CJ E&M	2.1%	2.5%	10.8%	8.0%	-3.6%
A005300	롯데칠성	3.2%	0.2%	5.7%	-2.7%	0.7%

2016년 5월

편입 종목						
코드	종목명	발표당일	편입당일	발표일~편입일	편입+10일	편입+30일
A051905	LG생활건강우	2.2%	-3.1%	-2.1%	3.1%	9.7%

평균 시장 대비 수익률(2015년 이후)	0.8%	0.0%	5.8%	-2.8%	0.5%
------------------------	------	------	------	-------	------

평균 시장 대비 수익률 (2010년 이후)	1.0%	1.8%	5.3%	-3.3%	-1.4%
-------------------------	------	------	------	-------	-------

자료: 한국투자증권

<표 4> 지수 제외 종목의 구간별 시장 대비 수익률 - 2015년 이후

2015년 2월

제외 종목						
코드	종목명	발표당일	편입당일	발표일~편입일	편입+10일	편입+30일
A028050	삼성엔지니어링	-4.2%	-4.8%	5.9%	6.2%	-9.5%

2015년 5월

제외 종목						
코드	종목명	발표당일	편입당일	발표일~편입일	편입+10일	편입+30일
A000080	하이트진로	3.2%	-2.9%	-5.5%	-0.2%	8.9%

2015년 8월

제외 종목						
코드	종목명	발표당일	편입당일	발표일~편입일	편입+10일	편입+30일
A010620	현대미포조선	-0.2%	4.7%	5.0%	11.0%	22.3%
A006260	LS	-4.8%	3.3%	-13.4%	6.5%	9.0%

2015년 11월

제외 종목						
코드	종목명	발표당일	편입당일	발표일~편입일	편입+10일	편입+30일
A042660	대우조선해양	-2.2%	-5.5%	-6.4%	-5.2%	-15.1%
A011200	현대상선	-3.1%	-8.2%	-8.9%	15.1%	-8.1%
A042670	두산인프라코어	0.9%	-2.5%	3.4%	-6.5%	-30.0%
A010120	LS산전	-6.2%	1.8%	-5.8%	3.9%	2.5%

2016년 5월

제외 종목						
코드	종목명	발표당일	편입당일	발표일~편입일	편입+10일	편입+30일
A000150	두산	-6.0%	1.8%	-7.0%	-1.7%	-3.3%

평균 시장 대비 수익률(2015년 이후)	-2.5%	-1.4%	-3.6%	3.2%	-2.6%
------------------------	-------	-------	-------	------	-------

평균 시장 대비 수익률 (2010년 이후)	-2.1%	-2.5%	-7.5%	2.4%	1.6%
-------------------------	-------	-------	-------	------	------

자료: 한국투자증권

패시브(passive) 매입수요  
1600억원 수준 추정

한화테크윈은 시총 3조원 이상의 대형주고, 유통주식비율(free float)도 높아 MSCI 지수 편입 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수 내 추정비중은 0.3~0.4% 수준이며, 글로벌리 한국 MSCI 지수를 패시브하게 추적하는 자금 규모를 45조원으로 가정하면 지수 편입에 따라 패시브 자금이 한화테크윈을 사야 하는 수요는 1,600억원 수준이다.

하루 200억원 수준인 한화테크윈 거래대금의 8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편입에 따른 수급 효과(impact)가 비교적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한화테크윈, MSCI 지수 편입에 따른 패시브 매입수요 추정

코드	종목	매입수요 추정(억원, A)	일평균 거래대금(B)	A/B (days)
A012450	한화테크윈	1,627	204	8.0

자료: 한국투자증권

■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주요지수 조기편입 케이스 점검

11월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예정

한편 11월에는 또 다른 중요 이벤트가 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증시 상장이다. 상장일은 11월 중순경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가 제시한 공모가 밴드(113,000~136,000원)에 기반한 시가총액은 7.5~9조원이며, 2014년 삼성 SDS, 제일모직의 상장 이후 최대 IPO다.

과거 삼성 SDS나 제일모직 등도 FTSE와 MSCI, KOSPI200 지수 특례편입에 따라 상장 직후 주가 변동이 크게 나타났던 경험이 있다. 비슷한 시총 규모의 대형주 IPO에 따라 주요지수 조기편입에 대한 시장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자료는 삼성 바이오의 투자 판단에 대한 부분은 유보하고 주요지수에 조기편입 가능성에 대해서만 적기로 한다.

MSCI, FTSE 지수에  
조기편입 가능성 있음

일단 추종하는 자금의 규모가 가장 큰 MSCI 지수와 관련해서는, 1년에 4차례 있는 분반기 종목변경(review) 외에 대형 IPO 종목에 대한 조기편입(early inclusion)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조기편입 조건을 충족하면 상장 후 10거래일 종가 시점으로 지수에 편입된다. 11월 중순 증시 상장을 가정하면, 조기편입 조건을 만족할 경우 11월 말에 지수에 조기 편입될 수 있다.

편입에 필요한 조건은 여러 가지이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상장 직후 지수 편입을 위한 최소 시가총액(Market Size Segment Cutoff)을 1.8배 이상 상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동 시가총액(free float Market Cap)은 위에 최소 시가총액의 절반(50%)을 1.8배 이상 동시에 상회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최소 시가총액 Cutoff를 2조원으로 가정한다면, 조기편입을 위해 단순 시가총액이 3.6조원(2\*1.8) 이상이어야 하고, 동시에 유동 시가총액은 1.8조원(2\*0.5\*1.8)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기준 최소 시가총액 Cutoff는 1.8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즉 MSCI 조기편입을 위해서는 삼성바이오의 상장 직후 시가총액이 3.3조원(1.8조원\*1.8배)을 상회해야 하고, 유동비율(FIF)을 적용한 시가총액은 1.65조원(1.8조원\*0.5\*1.8배) 수준을 상회해야 한다.

공모가 기준 예상 시가총액은 허들을 상당히 상회하는 수준이다. 유동비율 시가총액을 추정하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유동비율(FIF)을 추정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아래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삼성바이오의 공모 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다.

MSCI는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2) 우리사주, 3) 자사주 및 기타 법인 보유지분, 4) 정부 지분, 5) 은행 보유지분 등을 “비 유통주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체 상장주식 중에서 비 유통주식을 뺀 유통주식 비율에 대해 5% 구간 올림 적용해 FIF 비율을 정해준다. 공모 후 삼성바이오의 유통가능 주식은 전체 주식의 20.07%이므로, 적용되는 FIF 비율은 25%로 추정된다.

공모가 밴드를 기반으로 한 시가총액 밴드 7.5~9조원에 유동비율 25%를 적용하면 유동비율 시가총액은 1.87~2.25조원으로, 추정하는 유동비율 시가총액 허들 1.65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공모가가 밴드 최하단 수준으로 정해지고 상장 직후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따라서 MSCI 지수 조기편입의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삼성 바이오, 공모 후 유통가능 주식

구분	보유주식		공모 후 보통주지분율	보호예수기간	
	보통주	우선주			
보호예수 매도금지	최대주주 등	49,579,298 주	0 주	74.93%	상장 후 6개월
	우리사주조합 [공모분]	3,308,261 주	0 주	5.00%	상장 후 1년
<b>보호예수 물량합계</b>		<b>52,887,559 주</b>	<b>0 주</b>	<b>79.93%</b>	
유통가능	공모전 기타주주	44,400 주	0 주	0.07%	
	공모시 일반투자자	3,308,261 주	0 주	5.00%	
	공모시 기관투자자	9,924,780 주	0 주	15.00%	
	<b>유통가능 주식합계</b>	<b>13,277,441 주</b>	<b>0 주</b>	<b>20.07%</b>	
<b>공모후 상장주식수</b>		<b>66,165,000 주</b>	<b>0 주</b>	<b>100%</b>	

자료: KRX

국내 대표 벤치마크 지수인 KOSPI200 역시 대형 IPO 종목의 특례편입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KRX는 2014년 12월에 KOSPI200 특례편입 규정을 부분 변경했는데, 이전까지 상장 후 30거래일 간의 평균 시가총액이 KOSPI 전체 시가총액의 1%를 상회할 경우 KOSPI200에 특례 편입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관찰기간을 15거래일로 단축했다. 즉, IPO 종목의 상장 직후 15거래일 간의 시가총액 평균이 KOSPI 전체 시가총액의 1%를 상회할 경우 KOSPI200에 특례 편입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일은 가장 가까운 선물 만기일이며, 삼성 바이오가 11월 중순에 상장될 경우 조건 만족 여부에 따라 가장 빠르면 올해 12월 선물 만기일인 12/8일에 지수에 편입될 수도 있다.

다만 10월 한 달간 KOSPI 지수의 평균 시가총액을 계산해보면 1,255조원 정도이고, 1%에 해당하는 금액은 12.6조원 정도다. 삼성바이오가 KOSPI200에 특례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상장 후 15거래일간 시가총액이 해당 수준을 상회해야 하므로, 공모가 밴드 상단 시가총액(9조원) 대비로도 40% 이상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필요하다.

특례로 편입되지 않을 경우 삼성바이오의 KOSPI200 편입 시점은 내년 6월 정기변경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MSCI와 함께 중요 글로벌 벤치마크인 FTSE 지수 역시 IPO 종목에 대한 조기편입(fast entry) 규정이 있다. 요건이 충족되면 상장 후 5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지수에 조기 편입되게 된다.

FTSE는 조기편입을 위한 시가총액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9월 기준으로 FTSE가 명시한 시가총액 기준은 4.8억\$(5.5조원, 원달러 환율 1,140원 가정), 유동비율 시가총액 기준은 1.6\$(1.8조원, 원달러 환율 1,140원 가정)이다. 시가총액은 문제가 없지만, 유동비율 시가총액은 공모가 밴드 최하단 시총 기준으로는 허들에 걸릴 수 있는 수준이므로, 역시 안정적인 조기 편입을 위해서는 상장 직후 7.5조원 이상의 시가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삼성바이오의 공모가 밴드만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FTSE와 MSCI 지수에는 상장 직후 조기편입 가능성이 있지만, KOSPI200 특례 조기편입을 위해서는 다소 모자라는 시가총액 수준으로 판단된다.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18기 6중전회 개막, 중화권 증시 강세

- ▶ 상해종합지수 1.2% 상승, 18기 6중전회 개막에 따라 정책기대감이 부각된 것이 호재로 작용
- ▶ 홍콩H지수는 1.7% 상승, 정책기대감 부각과 국유기업 실적개선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

###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 1.2% 상승,  
석탄, 철강, 시멘트, 증권,  
유틸리티 등의 업종 강세

상해종합지수는 1.2% 상승한 3,128p로 마감했다. 장 초반 보험세를 보인 증시는 장 중 점차 상승폭이 확대됐다. 거래대금은 2,504억위안으로 직전거래일 대비 약 500억 위안 늘었다. 금일 18기 6중전회가 개막됨에 따라 구조조정, 혼합소유제 등이 가속화 될 것이 전망이 확대되면서 정책기대감이 부각됐다. 특히 내일 발개위가 주요 석탄기업들과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보도에 석탄 관련주가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또한 인민은행에서 공개시작조작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이어간 것이 투자심리를 개선시켰다. 다만 위안화가 재차 절하되면서 자본유출 우려가 확대된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업종별로는 공급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석탄, 철강 시멘트 등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그 외에도 증권, 유틸리티, 음식료 등 대부분이 상승했다. 심천성분지수와 차스닥도 상해증시의 강세에 동조하며 각각 0.9%씩 상승했다. 한편 외국인들은 이날 후구통을 통해 7.6억위안 순매수하며 매수세를 이어갔다.

###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1.7% 상승,  
소재, 에너지, 부동산, 소비재 등 대부분의 업종 강세

홍콩H지수는 1.7% 상승한 9,853p로 마감했다. 장 초반 등락을 반복한 증시는 이후 상승폭이 점차 확대됐다. 6중전회가 개막됨에 따라 정책기대감이 부각된 것과 국유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다만 10월 들어 본토자금의 유입이 급감한 것과 위안화 절하속도에 대한 우려가 확대된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업종별로는 소재, 에너지, 부동산, 소비재 등 대부분의 업종이 동반 상승했다. 한편 금일 홍콩H지수가 본토대비 강세를 보임에 따라 A/H프리미엄은 소폭 하락한 120.8을 기록했다.

#### ◆ 중국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단위: p, %)

구분	10/24(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상해종합	3,128.25	1.21	2.86	3.11	-11.61
심천종합	2,070.21	0.86	2.10	3.09	-10.34
차스닥	2,200.80	0.91	1.52	2.05	-18.91
홍콩H	9,852.90	1.72	2.62	0.04	1.99
Shibor 7일물 금리(% , %p)	2.40	0.12	0.59	-0.08	2.08
Shibor 1개월 금리(% , %p)	2.72	0.01	0.41	-0.19	-9.24
중국국채 3년물(% , %p)	2.31	0.41	-2.08	-3.55	-9.95
위안/달러 고시환율	6.7690	0.20	0.54	1.53	4.24
역내 위안/달러	6.7708	-0.06	-0.49	-1.51	-4.09
역외 위안/달러	6.7761	-0.08	-0.42	-1.37	-3.06

주: 24일 오후 5시 47분 기준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코스피, 아시아증시의 전반적 상승 속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에 2,050P선에 바짝 다가섬

- 미국증시가 기업실적 호조와 달러화 강세 등의 호약재가 엇갈리며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강보합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박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발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대두되며 한때 2,030P선까지 밀리기도 하였으나 외국인의 현선물 동시 매수세와 금융투자 중심의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며 2,050P선에 바짝 다가섬. 소폭 오르며 출발한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하락반전하며 650P선이 무너지며 하락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실적 개선에 배당매력이 높아지며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등 은행주가 동반 상승세를 보였고 정부의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소식에 피앤씨테크, 삼영엠텍 등 지진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임. 지주회사 전환 기대감에 삼성물산이 상승하며 신고가를 경신하였고, 자회사 LS엠트론의 대성전기공업 지분매각 검토 철회 소식에 LS가 상승세를 보임. 크라운제과가 지주사 전환 소식이 급등세를 보였고, 미투온이 가상현실 시장 본격 진출 기대감에 나흘째 초강세를 이어감. 중국 진출 본격화 기대감에 텅크웨어가 강세를 보였고,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전망에 애경유화가 견조한 오름세를 보임. 반면,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코스맥스와 세우테크가 급락했고, 국내 공공기관 입찰 자격 제한 소식에 한화테크윈이 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 용
지진관련주	정부가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에 동반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가 지진 관련 예산을 두 배 증액 편성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지진방재 종합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에 동반 강세</li> <li>- 피앤씨테크(237750, +12.38%), 삼영엠텍(054540, +5.27%), 유니스(018000, +4.46%), 대창스틸(140520, +2.25%) 등 강세</li> </ul>
미투온(201490) ▶7,750(+9.46%)	가상현실(VR) 시장 본격 진출 기대감에 나흘째 초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상현실 게임 개발사인 드림위즈게임을 관계사로 편입했다는 소식에 VR 소셜카지노 게임 본격 진출 기대감이 커지며 나흘째 초강세</li> <li>- 동사가 개발한 종합 모바일 소셜카지노 게임인 '폴하우스카지노'는 홍콩에서 19개월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여기에 VR 기술을 적용해 '폴하우스카지노 VR'을 개발하고 있음</li> </ul>
텅크웨어(084730) ▶12,600(+9.57%)	중국 진출 본격화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중국 브랜드 '씽크웨어'를 런칭하고 중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소식에 강세</li> <li>- 지난달 중국 북경에 중국법인을 설립하면서 첫발을 내디뎠고, 중국 정부가 대형차에 대해 블랙박스를 의무화함에 따라 블랙박스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li> </ul>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52주 신고가

종목	내 용
LG유플러스(032640) ▶12,150 (+5.65)	- 재무구조개선과 배당 증대 기대감에 상승하며 신고가 행진
현대중공업(009540) ▶155,500 (+1.97%)	- 루블화 강세에 따른 수혜 기대감과 필리핀 호위함 수주 소식에 상승하며 신고가 경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주요 종목들로 추천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기 유망종목: 에스에너지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에스에너지 (095910)	10,000 (-2.4)	10,250 (1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양광 모듈사업과 시스템 프로젝트 사업인 EPC(설계/조달/시공)사업을 영위. 태양광 원자재 가격 하락과 발전소 설치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li> <li>- 자회사 에스파워(지분 100%)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전문으로 하는 에스인베스트먼트(신설회사)를 물적 분할함에 따라 EPC 사업의 양적 성장 본격화</li> </ul>
유니트론텍 (142210)	34,000 (+29.3)	26,300 (0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전장용 메모리 반도체 부문 1위인 Micron사의 국내 반도체 유통을 독점적으로 담당해 안정적인 매출 성장 기대. 작년부터 발생한 대만 AUO사의 디스플레이 모듈 유통 매출의 빠른 증가세에 주목</li> <li>- '시리얼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조인트벤처 '유니트론텍차이나' 설립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중국 내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사업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li> </ul>
큐리언트 (115180)	37,100 (-20.4)	46,600 (09/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상2A상을 완료한 아토피성 피부염치료제 Q301의 기술 이전 기대감 여전. 아토피 치료제 전문회사인 '아나코'를 하이자가 52억 달러에 M&amp;A하면서 아토피치료제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아짐</li> <li>- FDA로부터 Q203은 임상 2상을 완료한 후 조건부허가를 받게 되면 Priority Review Voucher를 획득할 전망. 마지막으로 거래된 PRV의 가격은 3억5천만달러로 현재 시총을 감안할 때 bottom Value 매력 존재</li> </ul>
진성티이씨 (036890)	6,660 (+10.4)	6,030 (0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대선 후보들의 인프라투자 확대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 인프라투자 증가 기대감으로 Caterpillar, Hitachi 등 글로벌 건설기계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li> <li>- 이들 업체에 굴삭기 하부 주행체 부품을 공급중인 동사의 수혜 가능성 상존. 비용 절감을 위해 완성차 업체들의 부품 아웃소싱 비중이 높아지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li> </ul>
아진산업 (013310)	11,550 (+10.0)	10,500 (08/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 12월 현대기아차 개폐 구조물(moving parts) 신규 수주로 16년 700억원의 추가 매출 발생 예상</li> <li>- 설비증설 효과 본격화와 평균판가 상승에 따른 마진 개선을 감안할 때 저평가 매력은 여전한 상황</li> <li>- 개폐 구조물 신규 수주, 중국 설비증설, 차체 경량화, 부품 라인업 다각화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 강화 전망</li> </ul>
싸이맥스 (160980)	14,550 (+2.8)	14,150 (07/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장비 업체인 원익IPS, Semes, Applied Materials, 테스, ASMGK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웨이퍼 이송장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li> <li>- 삼성전자의 평택 단지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성장성 부각될 전망. 향후 삼성전자 외 중국 업체 등으로 고객 확대 가능성 및 후공정 패키징 이송장비 등 제품 다변화에 주목</li> </ul>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배셀은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가 발생해 수정주가를 적용하였습니다.

## 중장기 유망종목: 이마트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6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이마트 (139480)	167,500 (+6.7)	157,000 (09/22)	14,600	501	296	10,619	1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마트가 90% 지분을 보유한 신세계프라퍼티의 제1호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하남이 최근 오픈. 2021년까지 총 6개의 복합쇼핑몰을 계획하고 있어 장기적인 성장성에 주목</li> <li>- 스타필드하남은 스포테인먼트 시설과 유명 맛집 등 집객 효과가 높은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어 교외형 복합쇼핑몰의 성공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은 0.63배로 역사적 최저 수준</li> </ul>				
씨엠에스에듀 (225330)	31,350 (+16.5)	26,900 (08/26)	56.8	10.7	8.9	2,244	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교육방식을 기반으로 매출 상승세 지속</li> <li>- 적영점 및 가맹점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해외 진출 본격화</li> <li>- 16년 예상 PER은 11배 수준으로 주요 사교육업체 평균 예상 PER 17배 수준 대비 저평가</li> </ul>				
비아트론 (190510)	19,100 (-29.3)	27,000 (08/26)	91.6	24.5	17.7	1,731	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OE를 시작으로 Tianma와 Visionox 등 중국 패널업체들의 flexible OLED 설비투자 본격화에 따른 수혜 전망</li> <li>- LG디스플레이의 6세대 flexible OLED라인 설비투자 관련 장비 발주 예상</li> <li>- 주요 고객사의 중소형 OLED 투자 확대에 따른 수주 모멘텀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li> </ul>				
대상 (001680)	27,550 (-6.1)	29,350 (06/22)	2,946	131	82	2,288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이신부문이 빠른 공정 효율화 작업으로 수익성 개선되고 있고 하반기 베스트코의 실적 회복 기대</li> <li>-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식품부문의 영업이익률 향상 전망. 내년 초 공장이 완공되는 인도네시아의 전분/전분당 사업추가로 갈수록 실적 개선 폭 커질 전망</li> <li>- 올해 예상 PER 12.3배로 업종 평균 21.0배 보다 크게 낮아 밸류에이션 매력 상존</li> </ul>				
SK머티리얼즈 (036490)	144,900 (+16.9)	124,000 (04/25)	462	169	120	11,433	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K그룹에 편입되면서 전반적인 대외신인도 향상 및 시너지 효과 기대. 반도체 사업은 SK그룹의 핵심 육성 사업으로 수직계열화 측면에서 SK머티리얼즈의 전략적 가치 부각</li> <li>- 반도체 업체들의 지속적인 미세공정 전환과 3D NAND 투자 확대 수혜. 국내 및 중국 디스플레이업체들의 공격적인 플렉서블OLED라인 및 대형 OLED투자로 중장기적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li> </ul>				
한섬 (020000)	41,900 (+3.8)	40,350 (04/22)	710	84	69	3,132	1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및 신규 브랜드 도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현대백화점의 신규 출점 효과 등에 힘입어 외형 확대와 이익 개선세 가시화</li> <li>-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온라인, 홈쇼핑 등 판매 채널 확장으로 추가 성장여력 제고 예상</li> <li>- 경쟁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저평가 상태</li> </ul>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이마트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인터넷: 스마트폰 성형 시대의 도래

### ■ 스마트폰 카메라 혁신을 기반한 Selfie앱 성장에 주목

Deloitte Global은 2016년 온라인 상에 게재 및 공유되는 사진의 수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2.5조장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같은 온라인 사진 시장의 고성장은 1)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른 업로드 편의성 강화, 2) 사진 관련 앱 출시 증가, 3)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 개선에 기인한다. 특히 외모에 대한 관심 급증과 SNS를 통한 개인 생활 공유의 확대로 셀카 사진 보정이 가능한 Selfie앱 이용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10~20대 여성들을 위주로 Snow 등 Selfie앱 사용이 빠르게 확대 중이며 2016년 중국 내 Selfie앱 MAU는 3억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Selfie App 이용자들의 67%는 향후 주요 소비층으로 자리잡을 10대와 20대이기 때문에 인터넷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 Snapchat과 Meitu의 상장으로 사진 및 동영상 앱에 대한 관심 확대

중국 Selfie앱 업체인 메이투와 미국 사진·동영상 기반 메신저인 Snapchat의 상장으로 Selfie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전망이다. 메이투의 MAU는 6월말 기준 4.46억명에 달했으며 이는 위챗(MAU: 6억명)과 알리페이(MAU: 4.5억명)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치이다. 상장 시 조달 가능한 자금의 규모는 5~10억달러로 예상되며 현재까지의 펀딩 기준 기업가치는 38억달러에 달한다. 트래픽 대비 제한적인 수익 창출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견고한 이용자 기반을 활용한 In-App 광고 모델 집행 본격화와 라이브 동영상 플랫폼인 Meipai 내 Virtual Goods 판매 확대로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1.5억명 이상의 DAU를 보유한 Snapchat 또한 이르면 2017년 3월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가치는 25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과거 B612과 싸이메라 등의 Selfie앱들은 의미 있는 수익 창출 수단 확보에 실패하며 큰 관심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글로벌 Selfie앱 및 사진 기반 기업들의 상장으로 향후 Snow 등 관련 업체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한다.

### ■ Performance 광고와 사진 기반 Native 광고를 통한 Monetization 기대

Performance 광고 시장의 확대와 사진 기반 광고 상품 출시로 Selfie앱들의 제한적인 수익 창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과거에도 높은 트래픽을 보유한 카메라 앱들이 존재했으나 수익 창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performance 광고 시장이 최근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지배적인 Selfie앱들의 경우 견고한 이용자 기반을 활용해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을 활용한 Native 광고 상품들의 출시 본격화도 긍정적이다. Snapchat은 이미 Sponsored Filter와 Geofilter를 통해 매출을 창출했다. 또한 Styleicona는 Selfie 공유를 통해 의류를 광고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한바 있다. LINE 역시 지난 5일 다양한 뷰티 브랜드의 메이크업을 사진에 적용할 수 있는 Selfie앱인 Looks를 출시하며 도입 가능한 광고 모델의 예시를 제시했다. 향후 적용 가능한 필터 확대를 위해 다양한 브랜드와의 제휴를 추진할 계획이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필터 판매 등의 유료화 모델이 빠르게 도입될 전망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6년 10월 2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하나금융지주(086790)

<b>매수(유지)</b>
목표가: 46,000원(상향)
종가(10/21): 32,000원

##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발표를 이어가다

### ■ What's new : 은행 중심으로 이익 늘며 3분기 연결 순이익 28% 늘어난 4,501억원

3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을 전분기대비 28% 늘어난 4,501억원으로 발표했다. 우리 전망보다 27%나 많다. “NIM 방어, 대손충당금 하향 안정, 판관비 관리”의 삼박자는 타 시중은행(지주)와 같고, 외화환산이익이 1,254억원으로 전망보다 약 700억원 많은 덕분이다. 외화환산이익을 제외해도 컨센서스 상단이던 우리 전망을 10% 이상 초과한 셈이다. 누적 순이익은 1.2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 많다. 자회사별로는 누적순이익 1.26조원으로 30% 증가한 KEB하나은행(전년 3분기 하나/외환은행 별도이익 합산 누적 기준)이 대부분을 설명한다. 개선폭이 큰 자회사는 하나카드다. 누적 순이익이 134% 늘어난 593억원이다.

### ■ Positives : 보통주자본비를 우려 완전 탈피, 그리고 NIM 방어, 대손 안정, 판관비 감축

1) NIM은 전분기대비 1bp 하락에 그쳤다. 2분기 중 기준금리 인하를 감안하면 양호하다. 수익성 낮고, 부실화 우려 높은 대기업 대출 축소와 주택담보/신용대출 중심의 가계대출 확대 조합의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 그리고 조달금리 낮은 핵심예금을 늘려 수신금리를 낮춘 성과다. 2) 건전성도 개선되면서, 충당금 부담도 줄었다. 한진해운 및 관계사에 858억원을 추가했지만 분기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1,680억원에 그쳤다. 누적 대손율은 39bp까지 떨어졌다. 은행 전체 연체율도 12bp(QoQ) 하락한 0.42%에 이르렀다. 기업여신 연체율이 15bp 하락해 0.63%에 이른 덕분이다. 전반적으로 낮은 연체율은 0.20%의 절대 양호 수준을 보이는 가계여신 덕분이다.

3) 보통주자본비율에 대한 우려 탓에 자산/판관비 증가를 억제하던 관리기조가 끝나간다. 아니 끝났다. 지난 분기에는 내부등급법 승인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의 큰 폭 상승이 있었다. 이 덕에 3분기 보통주자본비율은 11.57%로 예상되어 2019년 1월부터 준수해야 할 최저비율 8%를 크게 상회한다. 연말에 대손준비금까지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면 12%를 훌쩍 넘길 것이다. 이미 3분기 중 여수신 성장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비중은 현 수준에서 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적정 성장 수준에 대해 고민이란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보통주자본비율이 늘어난 만큼 배당성향도 제고한다는 방침인데, 구체적 수준은 안 밝혔다.

### ■ Negatives : 터무니 없는 저평가에서는 벗어났음

1) 올해 동사 주가는 저점이던 1월말대비 60% 상승했다. KOSPI를 51%p, KRX은행지수는 42%p 초과상승했다. 우리 추정치 기준으로 0.3배도 하회했던 FY16 PBR은 최근 0.42배에 이르렀다. 2) 보통주자본비율 부담이 사라진 덕분에 상반기 내내 감소시켰던 원화대출을 다시 늘렸다. 다만 보다 명확한 배당성향 상향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은 아쉽다.

■ 결론 : 올해와 내년 이익 전망 6%, 10% 높이고, 목표주가 15% 상향

올해, 내년 이익 전망을 6%, 10% 상향했다. 올해는 양호한 3분기 실적, 내년은 IFRS9 시행에 따른 매도가능증권평가의 실현 확대를 우선 1,300억원 가량 반영했다. ROE 전망은 6.2%로 동일하다. 목표가격을 46,000원으로 15% 상향한다. 작년부터 유지해 온 목표주가와의 괴리율이 25%로 좁혀진 탓이다. 장기적으로 ROE를 6% 수준을 이어간다면 0.6~0.7배 수준의 PBR(ROE, 자본비용, 성장률 가정 조합은 각각 6.2%, 9.1%, 0%)도 무리 없다. 이런 판단에 낮은 보통주자본비율 우려 탓에 적용하던 할인율 20%를 10%로 줄인다. 목표 PBR 0.61배를 적용한 셈이다. 12월 미국 Fed의 연방기금금리 인상 가능성과 이후 금리 방향성에 대한 시장의 인식 변화, 그리고 보통주자본비율 토대 위의 점진적 배당성장 상황이 중요하다. 이마저 현실화된다면 남은 10%를 걷어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단위: 십억원, %, %p)

	3Q16P				증감률		2016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순이자이익	1,142.3	1,145.9	0.3	1,217.4	0.1	1.7	4,626.1	4,624.8
총전영업이익	678.0	824.7	21.6	673.8	14.2	117.1	2,713.4	2,748.5
금융자산 손상차손	218.0	206.1	(5.5)	225.8	(31.4)	48.4	985.3	1,113.2
세전이익	498.2	606.6	21.8	461.5	25.2	80.3	1,850.6	1,744.5
지배주주 지분 순이익	352.8	450.1	27.6	337.1	27.8	76.6	1,360.3	1,281.4

\*상기 보고서는 2016년 10월 2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코스맥스(192820)

**매수(유지)**

목표가: 190,000원(하향)

종가(10/21): 145,000원

### 유상 증자 결정, 단기 주가 변동성 불가피하나 중장기 전망 불변

#### ■ 1,200억원 규모 유상 증자 결정, 발행주식수의 11.7% 수준

21일 동사는 1,200억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공시했다. 1,050,000주 신주 발행 예정으로 예상 주당 발행가는 115,000원(기준 주가에 할인율 20%)이다.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이며 2017년 1월 3일 신주 상장 예정이다. 현 발행 주식수의 11.7%에 해당되며 증자 목적은 신규 투자와 차입금 상환이다. 국내 사업에 약 600억원 투자가 집행되고 차입금 상환이 275억원 예정되어 있으며 그 외 운영 자금 및 미국 법인에 일부 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사업은 캐파 증설 및 인력 확보에 약 300억원이 투자되어 국내 캐파는 2016년 말 3억 개에서 3.9억 개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통합 물류센터 설립에 3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 ■ 주당 가치 하락 불가피하나 부채비율 크게 하락, 공격적인 투자 확대는 당위성 제공

증자 후 주식수는 11.7% 증가, 주당 가치 희석이 불가피하다. 반면, 최근 수년간 동사의 공격적인 해외 진출 및 증설로 인해 부채 비율과 차입금 비율은 2015년 말 355%, 200%까지 상승했다. 증자 이후 2017년 말 부채비율은 150%대로, 차입금비율도 70%대로 하락해 재무 구조에 대한 우려는 낮아질 것이다. 동사의 전체 캐파는 2012년 2.4억 개에서 금년 말 9.4억 개, 중국 내 JV(예정) 캐파까지 감안 시 약 10억 개 캐파로 4년 만에 4배 증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차입금으로 조달해 왔으나 2017년에도 국내 캐파 약 30% 증설 계획, 통합 물류 센터 설립 등이 진행될 예정으로 자금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사업은 2015년부터 30%대 성장을 시현하면서 해외 못지 않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중국향 수출을 주로 하는 중저가 브랜드들이 다수 등장, 동사의 간접 수출이 급증하고 있고 글로벌 브랜드향 직접 수출도 고성장하기 때문이다.

#### ■ 3Q16 Preview: 고성장 지속, 미국 영업 적자 확대가 수익성 변수

3~4분기 비수기에는 비용 여부에 따라 이익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다.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128억원으로 컨센서스와 유사, 매출액이 32% 증가하면서 중국 위안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외형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매출이 30% 이상 성장하고 있고 중국은 위안화 약세 영향으로 24% 증가할 전망이다. 위안화 기준 30%대 성장은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 신규 매출 기여도 일부 있을 것이다. 수익성은 미국 법인 영업 적자 확대에 따라 전년과 유사할 전망이다. 금년 중국은 증설을 앞두고 외형 성장이 둔화되면서 미국 손실이 확대되었는데, 2017년 중국은 증설이 본격화되면서 매출액이 금년 대비 38% 증가하면서 성장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은 빠른 인력 충원 등 초기 투자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파악, 2017년부터 영업 적자 축소가 예상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334	24	17	1,846	NM	31	54.0	33.1	11.1	18.9	0.5
2015A	533	36	21	2,361	27.9	45	77.9	41.0	16.9	23.8	0.4
2016F	721	52	33	3,616	53.1	63	40.1	24.4	10.6	29.5	0.6
2017F	940	74	51	5,048	39.6	87	28.7	17.0	5.1	25.0	0.8
2018F	1,171	104	74	7,384	46.3	119	19.6	12.5	4.2	23.6	0.9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6년 10월 2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김성은(askim@truefriend.com) ☎ 02-3276-6158

## 한글과컴퓨터(030520)

**매수(신규)**

목표가: 25,000원

종가(10/21): 17,900원

### 글로벌 오피스 소프트웨어 시장의 다크호스

#### ■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25,000원 제시

한글과컴퓨터에 대해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25,000원을 제시하며 분석을 개시한다. 목표주가는 12MF EPS 1,434원에 목표 PER 17.4배(글로벌 대형 소프트웨어 업체 12MF 평균 16% 할인)를 적용해 산출했다. 한글과컴퓨터는 향후 3년간 EPS가 연평균 21.6% 증가해 해외업체 대비 성장성이 높으나 할인 거래돼 주가가 저평가됐다. 주주 친화적 정책으로 2016년 배당수익률은 2.5%에 달한다.

#### ■ 국내는 경쟁력 우위로 질적, 양적 성장, 해외 매출도 급증

2016년 6월 경기도 교육청의 ‘한컴오피스 NEO’ 단일 오피스 소프트웨어 채택을 계기로 2016년, 2017년 판매량은 전년대비 각각 12%, 11% 증가할 전망이다. 한글과컴퓨터는 3~4년 주기의 신제품 출시를 통해 가격을 인상하고, 라이선스 이용료는 출시 주기에 안분해 매년 인상한다. 2016년 1월 출시된 ‘한컴오피스 NEO’를 주축으로 오피스 소프트웨어 매출액은 2016~2018년 연평균 17% 증가할 것이다. 나아가 벨기에의 ‘iText’ 인수와 남미, 중국에서의 실적 기여로 해외 매출 비중은 2015년 2.5%에서 2016년 14.8%로 상승할 전망이다. 가격 경쟁력과 우월한 보안성, M&A 등으로 매출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 2016년, 2017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14%, 22% 증가 전망

2016년, 2017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각각 21%, 17% 증가할 것이다. 2016년 영업이익은 ‘한컴오피스 NEO’ 출시에 따른 마케팅비와 해외 진출 초기비용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매출 호조로 전년대비 14% 증가할 전망이다. 2017년 영업이익은 매출 증가와 지급 수수료 등 비용 감소로 전년대비 22% 증가할 것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76	27	20	900	3.1	35	22.4	11.9	2.9	13.9	1.3
2015A	85	28	24	1,100	22.2	35	21.3	14.6	3.2	15.9	1.7
2016F	103	32	26	1,200	9.1	44	14.9	8.7	2.2	16.4	2.5
2017F	120	39	32	1,493	24.4	51	12.0	7.4	2.0	18.3	3.1
2018F	141	48	39	1,776	18.9	60	10.1	6.2	1.8	19.3	3.6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6년 10월 2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롯데제과(004990)

<b>매수(유지)</b>
목표가: 250,000원(하향)
종가(10/21): 175,000원

## 3Q16 Preview: 회복 구간

### ■ 3분기 실적 컨센서스 소폭 하회 전망

롯데제과의 연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1% 감소, 영업이익은 2.6% 증가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컨센서스를 3.2%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동기대비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국내 건과에서 허니버터 스낵 인기의 기저 부담이 존재하고, 해외 계열사 실적이 현지 통화 절하 등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와 해외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1%, 1.0% 감소할 전망이다. 8월에 권장소비자가격 제도가 가장 비중이 큰 바(Bar)류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빙과부문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3분기 빙과 매출액은 7월의 판매 부진과 유통재고로 전년동기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4분기부터는 수년간 떨어졌던 빙과 ASP가 전년동기대비 2~4%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매출액이 2천억원 수준이며, 연결 영업이익 기여도가 15% 수준인 카자흐스탄의 현지 법인 라하트는 3분기에에도 현지 통화로는 50% 이상의 매출액 성장률을 시현한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현지 통화인 텡게의 원화대비 가치가 전년동기대비 40% 이상 절하돼 이번 분기에도 이익 증가에 큰 기여를 하지는 못한 듯 하다. 반면 파키스탄 법인은 현지 통화 절하에도 불구하고 원화 매출액 성장률이 10%에 다다르고, 인도도 상반기의 홍수 피해에서 벗어나 제 2공장 준공에 따른 판매 증가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 ■ 4분기부터 영업이익 증가 예상, 자산가치도 다시 부각될 것

동사에 대해 SOTP로 산출한 목표주가를 290,000원에서 250,000원으로 하향한다. 이는 주로 카자흐스탄 등 해외 법인의 현지 통화의 가치가 대부분 하락한 점을 반영해 영업가치를 낮춘 데 기인한다. 일부 통화의 경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도상국가임을 반영해 3년간 추락한 뒤인 지난 3분기의 평균 환율을 미래 전망치에 적용해 산출했다. 하지만 목표주가 하향에도 불구하고 42.9%의 상승 여력이 존재하고, 영업 및 자산가치 상승 모델이 우수해 매수를 추천한다. 4분기부터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국내 건과는 높은 기저 부담이 사라지고, 빙과는 비수기이긴 하지만 ASP가 오르면서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다. 라하트도 통화 평가 부담이 약해지며 원화 매출액 증가율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7%와 20.7% 증가할 것이다. 현 시가총액의 59%인 1.5조원에 달하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평가도 개선될 것이다. 오너 이슈가 마무리돼 내년 상반기에 호텔롯데가 상장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2,225	115	(3)	(203)	NM	206	NM	15.0	1.0	(0.1)	0.3
2015A	2,258	144	75	5,345	NM	240	42.6	15.4	1.3	3.0	0.5
2016F	2,239	144	89	6,242	16.8	244	28.0	11.9	0.9	3.4	0.8
2017F	2,347	166	117	8,240	32.0	268	21.2	10.9	0.9	4.3	1.0
2018F	2,451	188	141	9,953	20.8	291	17.6	9.9	0.9	5.0	1.3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6년 10월 2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CJ CGV(079160)

**매수(유지)**

목표가: 103,000원(하향)

종가(10/21): 70,600원

## 3Q16 Preview: 인고의 시간

### ■ 3Q16 Preview: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다. 3분기 연결매출액은 4,28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9.6% 증가하나, 영업이익은 339억원으로 13.1% 감소해 컨센서스 영업이익(443억원) 대비 21.9%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1) 국내 박스오피스가 전년동기 높은 부담 등으로 관람객수가 0.9% 감소해 박스오피스 매출액이 1.7% 증가에 그쳤다. 2) 본사 외형 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직영점 증가 등으로 늘어난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떨치기 쉽지 않아 본사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837억원(+2.5% YoY), 영업이익 359억원(-5.1% YoY)으로 예상된다. 3) 6월부터 연결 계상된 터키 마르스엔터테인먼트는 비수기 영향과 무형자산상각비 등 비용 반영으로 3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4) 중국은 3분기 박스오피스가 13.4% 감소해 영업적자 14억원을 기록할 것이다. 세전단에서는 5) 지난 9월 말, 공정위과 부과한 과징금 71.7억원이 영업외비용인 대손충당금으로 분기 중 일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6) 터키 법인 인수로 조달한 단기차입금의 이자비용은 분기 fully 반영돼 전분기대비 증가할 전망이다. 박스오피스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아 외형성장이 저조한 반면, 영업비용 및 일회성비용 등은 증가해 다소 부진한 성과가 예상된다.

### ■ 숨고르는 중국과 성장성은 분명한 터키 시장

폭발적인 성장 가도를 달리던 중국 박스오피스는 금년 2분기(-5.1%), 3분기(-13.5%) 연속 전년동기대비 역성장세를 시현해 시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라인업 부진, 티켓 할인폭 축소, 일부 영화의 티켓 판매 조작 등에 따른 숨고르기일 뿐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 기저 부담이 사라지고 시장이 안정화되는 내년부터는 박스오피스 성장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터키 박스오피스는 문화 특성상 성수기(1, 4분기)와 비수기가 분명해 분기 변동성이 있다. 금년은 인수 초기 비용 등으로 부진하나 내년부터는 의미있는 실적 기여가 예상된다. 17년 터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341억원, 307억원으로 전망한다.

### ■ 중장기 방향성은 긍정적, 매수 의견 유지

CJ CGV에 대해 중장기 성장성에 근거해 매수 의견은 유지하나 목표주가를 12만원에서 103,000원으로 14% 하향한다. 본사 수익 추정치를 하향했고, 글로벌 박스오피스 예상치를 낮췄으며 중국 사업부 가치를 기존 1.5조원에서 1.3조원으로 낮췄다. 흥행성에 기댄 산업으로 라인업에 따른 실적 변동성과 금년 추가된 터키 사업의 초기 비용 등에 기인한 실적 부진은 피하지 못했지만 글로벌 멀티플렉스 사업자로서의 중장기적 기업 가치는 유효하다. 멀티플렉스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중국, 베트남, 터키, 인도네시아 등 시장은 구조적 확대는 지속할 것으로 시장 내 입지 강화를 통해 중장기 수익 호전을 이끌 전망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1,039	52	17	787	28.4	135	68.6	11.1	3.0	4.4	0.6
2015A	1,194	67	52	2,455	211.9	176	51.3	17.6	6.3	12.9	0.3
2016F	1,484	64	37	1,732	(29.5)	196	40.8	12.1	3.1	8.1	0.5
2017F	1,844	120	61	2,880	66.3	267	24.5	8.5	2.8	12.0	0.5
2018F	2,103	150	78	3,707	28.7	300	19.0	7.3	2.5	13.8	0.6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6년 10월 2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0/18(화)	10/19(수)	10/20(목)	10/21(금)	10/24(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40.43	2,040.94	2,040.60	2,033.00	2,047.74	
	등락폭	12.82	0.51	-0.34	-7.6	14.74	
	등락종목	상승(상한)	431(1)	360(2)	329(2)	279(1)	386(1)
		하락(하한)	366(0)	432(0)	475(0)	529(0)	429(0)
	ADR	92.96	89.47	86.87	81.68	79.44	
	이격도	10 일	100.02	100.10	100.21	99.94	100.70
		20 일	99.79	99.77	99.75	99.41	100.15
	투자심리	60	70	60	60	60	
	거래량	(백만 주)	306	322	276	260	249
	거래대금	(십억 원)	3,906	4,098	3,955	3,490	3,452
코스닥	코스닥지수	660.29	661.26	655.68	651.77	647.88	
	등락폭	0.46	0.97	-5.58	-3.91	-3.89	
	등락종목	상승(상한)	432(0)	497(0)	329(1)	387(1)	412(2)
		하락(하한)	642(2)	583(0)	763(0)	699(0)	670(0)
	ADR	95.87	96.06	95.31	94.80	94.29	
	이격도	10 일	98.42	98.92	98.51	98.27	98.08
		20 일	97.43	97.67	97.01	96.67	96.38
	투자심리	20	30	30	30	30	
	거래량	(백만주)	524	528	556	507	557
	거래대금	(십억원)	2,734	2,595	2,949	2,935	2,941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486.4	1,085.1	859.2	344.3	67.7	132.3	74.5	5.3	235.1	26.4
	매도	1,722.5	994.8	700.6	192.7	71.4	122.2	60.0	13.7	240.6	39.1
	순매수	-236.2	90.3	158.6	151.6	-3.8	10.2	14.6	-8.5	-5.5	-12.7
	10월 누계	-717.8	548.7	93.5	94.9	44.1	-140.9	116.8	-31.9	10.5	75.5
	16년 누계	-6,009.9	10,330.0	-7,756.8	-2,044.4	751.6	-5,723.7	-882.1	-1,003.8	1,146.0	3,436.5
코스닥	매수	2,706.1	153.9	71.9	26.9	4.4	14.2	8.5	1.1	16.8	16.4
	매도	2,670.0	162.8	99.1	24.3	7.6	24.0	11.4	3.5	28.3	16.3
	순매수	36.0	-8.9	-27.2	2.5	-3.1	-9.9	-2.9	-2.4	-11.5	0.0
	10월 누계	644.1	-139.2	-418.2	-42.4	-36.4	-155.2	-61.9	-11.5	-110.9	-86.7
	16년 누계	5,783.0	763.3	-4,559.0	-608.3	-309.8	-1,564.7	-675.0	-158.4	-1,242.9	-1,987.2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유통업	12,176	화학	-9,401
철강금속	5,275	서비스업	-8,133
운수장비	4,541	의약품	-2,697
삼성물산	8,852	코스맥스	-7,924
삼성전자	5,661	CJ CGV	-3,144
현대모비스	5,208	SK하이닉스	-2,586
기업은행	3,138	한화테크윈	-2,578
LG화학	2,635	KB금융	-2,264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철강금속	21,609	서비스업	-25,600
은행	11,129	운수장비	-12,432
통신업	10,375	전기가스	-8,121
POSCO	18,741	NAVER	-13,530
삼성전자	13,545	한국전력	-8,378
삼성생명	10,343	삼성화재	-5,419
SK텔레콤	8,300	SK하이닉스	-5,304
LG화학	6,495	한국항공우주	-4,425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비금속	214	미분류	-20,362
의약품	162	통신업	-4,466
건설업	117	전기가스	-1,164
KBSTAR 200선물인버스2X	1,942	KODEX 레버리지	-12,413
KODEX 인버스	638	SK텔레콤	-4,499
삼성전자	612	TIGER 레버리지	-4,411
KINDEX 베트남VN30(합성)	281	TIGER 200	-2,643
KODEX 은행	196	KBSTAR 200	-2,341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3,362	전기가스	-9,910
전기전자	2,989	화학	-6,002
보험업	2,818	미분류	-3,504
SK하이닉스	5,798	한국전력	-10,110
SK이노베이션	2,731	코스맥스	-3,206
현대제철	2,620	삼성전자	-2,535
현대차	2,277	IHQ	-1,989
KB손해보험	1,792	기업은행	-1,911

##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52,633	전기가스	-16,350
철강금속	34,940	서비스업	-14,152
운수장비	21,654	건설업	-1,253
삼성전자	51,643	KODEX 200선물인버스2X	-24,558
KODEX 레버리지	38,604	한국전력	-17,113
POSCO	22,621	TIGER 200선물인버스2X	-11,830
삼성물산	19,351	코스맥스	-10,355
현대모비스	13,085	NAVER	-9,350
LG화학	12,335	KODEX 인버스	-7,472
삼성생명	11,772	한국콜마	-5,183
현대차	11,146	하나금융지주	-4,593
신한지주	10,248	CJ CGV	-4,293
TIGER 200	9,965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3,742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유통업	43,627	의약품	-16,058
기타금융업	31,794	전기전자	-12,712
서비스업	19,213	전기가스	-8,816
삼성물산	27,507	현대모비스	-13,435
하나금융지주	17,776	SK하이닉스	-12,196
KB금융	16,047	한국전력	-11,762
LG디스플레이	8,117	삼성전자	-10,172
NAVER	7,224	한미약품	-9,240
롯데쇼핑	7,027	TIGER 200	-9,120
LG유플러스	6,330	LG화학	-7,549
현대중공업	5,457	한미사이언스	-5,406
삼성중공업	4,983	클라운제과	-4,755
KODEX 레버리지	4,940	SK이노베이션	-4,520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일반전기전자	289	계약	-2,604
농업	276	반도체	-2,368
비금속광업	240	출판,매체복제	-1,262
테라세미콘	483	로엔	-1,262
다산네트웍스	354	비아트론	-1,102
JYP Ent.	295	에스엠	-689
농우바이오	277	셀트리온	-543
보광산업	240	NICE평가정보	-520

은행		보험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컴퓨터서비스	131	일반전기전자	-2,234
미분류	126	연구,개발	-168
농업	105	화학	-123
동국제약	164	인텔리안테크	-2,129
에스앤씨엔진그룹	125	휴젤	-170
농우바이오	105	지엘팜텍	-168
텔콘	101	다산네트웍스	-112
정원엔시스	90	대유위니아	-111

(체결기준: 백만원)

외국인		기관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반도체	222	계약	-1,543
의료,정밀기기	191	화학	-279
비금속	63	기계,장비	-275
동진썬미켄	529	메디톡스	-841
에스티아이	476	콜마비앤에이치	-600
SK머티리얼즈	437	비아트론	-523
코오롱생명과학	360	AP시스템	-508
비에이치	242	원익IPS	-305

외국인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방송서비스	1,791	계약	-8,363
정보기기	1,564	반도체	-5,758
음식료,담배	1,112	섬유,의류	-1,734
세우테크	2,554	휴젤	-2,272
이오테크닉스	1,687	주성엔지니어링	-1,891
CJ오쇼핑	1,563	AP시스템	-1,878
로엔	1,308	에스티팜	-1,803
유진테크	1,292	지엔코	-1,447
뉴트리바이오텍	1,084	셀트리온	-1,189
HB테크놀러지	962	게임빌	-1,004
카카오	879	유니테스트	-949
루트로닉	872	보광산업	-908
SKC코오롱PI	855	대화계약	-900

##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외국인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디지털컨텐츠	867	계약	-6,847
통신장비	656	반도체	-4,329
도매	542	출판,매체복제	-2,934
컴투스	1,788	로엔	-2,893
동국S&C	1,284	비아트론	-1,797
이엔에프테크놀로지	746	셀트리온	-1,699
대원미디어	725	인텔리안테크	-1,687
NEW	672	SK2호스팩	-1,644
에스티아이	635	SK머티리얼즈	-1,485
JYP Ent.	587	파라다이스	-1,215
루트로닉	547	원익IPS	-1,197
GS홈쇼핑	534	인선이엔티	-1,100
동진썬미켄	512	메디톡스	-939

외국인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방송서비스	1,791	계약	-8,363
정보기기	1,564	반도체	-5,758
음식료,담배	1,112	섬유,의류	-1,734
세우테크	2,554	휴젤	-2,272
이오테크닉스	1,687	주성엔지니어링	-1,891
CJ오쇼핑	1,563	AP시스템	-1,878
로엔	1,308	에스티팜	-1,803
유진테크	1,292	지엔코	-1,447
뉴트리바이오텍	1,084	셀트리온	-1,189
HB테크놀러지	962	게임빌	-1,004
카카오	879	유니테스트	-949
루트로닉	872	보광산업	-908
SKC코오롱PI	855	대화계약	-900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유성기업	43 일	넥센타이어	35 일
한화케미칼	19 일	고려제강	30 일
TIGER 원유선물(H)	17 일	KB손해보험	25 일
울촌화학	16 일	우진	24 일
맥쿼리인프라	15 일	빙그레	24 일
삼원강재	13 일	아모레G	23 일
유니드	13 일	BYC	19 일
QV 내수소비 TOP5 ETN	12 일	한화테크윈	17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이베스트투자증권	31 일	에이디칩스	17 일
씨엠에스에듀	21 일	하이록코리아	17 일
케이디켄	12 일	연우	11 일
코스온	12 일	한라MS	10 일
비에이치	11 일	인포바인	8 일
크리스탈	11 일	휴맥스	8 일
HB테크놀러지	11 일	엔브이에이치코리아	8 일
셀트리온제약	11 일	세동	8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81,105	삼성전자	93,319
KODEX 레버리지	73,212	LG화학	63,310
POSCO	63,078	NAVER	62,664
우리은행	49,161	아모레퍼시픽	52,943
LG화학	39,133	삼성물산	52,873
기업은행	38,876	KB금융	52,494
삼성생명	38,550	SK	34,231
한화케미칼	38,450	POSCO	33,766

KOSDAQ			
기	관	외	국 인
셀트리온	6,922	CJ E&M	5,317
컴투스	5,094	잉글우드랩	5,174
카카오	5,045	인바디	4,701
동국S&C	3,782	아프리카TV	3,782
게임빌	3,295	에스에프에이	3,414
드래곤플라이	3,176	뉴트리바이오텍	3,280
나노신소재	2,456	세우테크	2,574
엔브이에이치코리아	2,400	웹젠	2,051

##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유통업	13,328	43,627	56,954
기타금융업	9,485	31,794	41,279
철강금속	34,940	4,715	39,655
삼성물산	19,351	27,507	46,858
KODEX 레버리지	38,604	4,940	43,544
POSCO	22,621	4,886	27,508
삼성생명	11,772	3,523	15,295
LG유플러스	2,922	6,330	9,252
S-Oil	6,230	2,319	8,549
LG디스플레이	373	8,117	8,490
현대중공업	2,733	5,457	8,189
기업은행	6,039	2,131	8,170
삼성중공업	1,739	4,983	6,721

종 목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정보기기	130	1,564	1,694
통신장비	656	494	1,150
도매	542	527	1,069
세우테크	12	2,554	2,567
이오테크닉스	335	1,687	2,022
루트로닉	547	872	1,419
동국S&C	1,284	41	1,325
HB테크놀러지	356	962	1,318
바이로메드	250	810	1,060
탱크웨어	125	711	836
웹젠	55	737	792
대원미디어	725	19	744
잉글우드랩	2	698	700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기 관	KOSPI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SIMPAC	22 일	지투알	35 일
삼호개발	20 일	대양금속	33 일
송원산업	20 일	인지컨트롤스	23 일
대상홀딩스	18 일	세화아이엠씨	21 일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17 일	S&TC	20 일
TIGER 배당성장	16 일	유화증권	20 일
신세계건설	16 일	대원제약	20 일
한국콜마홀딩스	16 일	삼진제약	18 일

기 관	KOSDAQ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휴맥스홀딩스	53 일	아바텍	19 일
대원산업	24 일	제이티	17 일
이지웰페어	22 일	미래테크놀로지	14 일
유진기업	19 일	코이즈	14 일
유니크	19 일	해덕파워웨이	14 일
메디톡스	18 일	신성델타테크	14 일
선광	18 일	평화정공	14 일
한화MGI스팩	17 일	케이디켄	13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KOSPI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NAVER	-77,602	현대모비스	-43,640
한국전력	-58,777	SK하이닉스	-36,646
KODEX 200선물인버스2X	-48,924	KT&G	-28,087
아모레퍼시픽	-47,008	한미약품	-24,192
한국항공우주	-44,333	삼성카드	-21,949
현대차	-38,884	롯데케미칼	-14,990
아모레G	-24,855	한국전력	-14,792
TIGER 200선물인버스2X	-24,403	맥쿼리인프라	-14,017

기 관	KOSDAQ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골든센츄리	-16,442	미투온	-19,144
파라다이스	-13,727	메디톡스	-17,272
메디톡스	-12,773	휴젤	-7,842
CJ E&M	-8,687	파라다이스	-6,628
인텔리안테크	-7,868	골든센츄리	-5,433
미투온	-6,417	주성엔지니어링	-5,350
비아트론	-5,398	원익IPS	-4,488
아프리카TV	-5,105	게임빌	-4,352

###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가스	-16,350	-8,816	-25,165
의약품	-600	-16,058	-16,658
음식료	-1,138	-7,418	-8,556
한국전력	-17,113	-11,762	-28,875
KODEX 200선물인버스2X	-24,558	-952	-25,509
TIGER 200선물인버스2X	-11,830	-1,325	-13,155
한미약품	-1,473	-9,240	-10,713
KODEX 인버스	-7,472	-2,973	-10,445
삼성카드	-3,157	-1,933	-5,090
삼성SDI	-1,393	-3,331	-4,725
하이트진로	-1,847	-2,502	-4,349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3,742	-30	-3,772
만도	-185	-2,877	-3,061

종 목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제약	-6,847	-8,363	-15,211
반도체	-4,329	-5,758	-10,086
IT부품	-1,040	-1,097	-2,138
셀트리온	-1,699	-1,189	-2,888
휴젤	-594	-2,272	-2,867
비아트론	-1,797	-735	-2,531
AP시스템	-295	-1,878	-2,173
파라다이스	-1,215	-881	-2,095
인텔리안테크	-1,687	-301	-1,988
주성엔지니어링	-93	-1,891	-1,984
에스티팜	-41	-1,803	-1,844
원익IPS	-1,197	-591	-1,788
게임빌	-211	-1,004	-1,215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12	18,410	
한국전력	218	11,444	
KB금융	223	9,475	
POSCO	36	8,657	
삼성중공업	859	8,288	
SK텔레콤	37	8,207	
LG화학	30	7,420	
신한지주	166	7,28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카카오	40	3,202	
메디투스	5	1,829	
파라다이스	116	1,609	
휴젤	2	817	
CJ E&M	11	812	
케어젠	8	762	
게임빌	12	679	
덕산네오룩스	22	658	

##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739	7,529,508	
NAVER	1,683	1,398,917	
KB금융	31,209	1,323,269	
SK하이닉스	30,974	1,268,365	
현대중공업	7,042	1,073,836	
현대차	6,106	815,097	
KT&G	7,233	799,233	
LG생활건강	883	797,00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3,690	2,511,154	
카카오	11,070	892,233	
로엔	3,373	238,461	
컴투스	2,347	224,176	
바이로메드	2,094	203,780	
파라다이스	13,204	182,875	
메디투스	407	159,687	
코미팜	3,702	156,227	

##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운수장비	2,827 증권	-2,864	
은행	1,821 서비스업	-1,503	
의약품	1,727 전기전자	-746	
삼성중공업	3,106 아시아나항공	-1,123	
우리은행	2,327 SK하이닉스	-1,096	
팬오션	1,635 SK증권	-1,057	
한올바이오파마	1,245 LG디스플레이	-745	
대한전선	1,145 현대증권	-612	
해태제과식품	948 한국토지신탁	-554	
우리증권	625 기업은행	-511	
동부하이텍	557 KB금융	-474	
화승인더	481 GS건설	-437	
하나금융지주	448 효성	-42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오락,문화	3,347 미분류	-491	
종합건설	2,152 디지털컨텐츠	-251	
반도체	1,889 컴퓨터서비스	-198	
파라다이스	3,327 차이나그레이트	-602	
서희건설	1,511 솔고바이오	-317	
주성엔지니어링	871 인터파크홀딩스	-303	
CMG제약	672 JW신약	-245	
SGA	661 셀루메드	-208	
KD건설	600 SFA반도체	-205	
원익홀딩스	537 파트론	-178	
아프리카TV	533 섀코어	-173	
셀트리온	427 NICE평가정보	-172	
태웅	353 에스코넥	-167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0/18(화)	10/19(수)	10/20(목)	10/21(금)	10/24(월)
외국인	10,330.0	548.7	656.5	187.5	227.6	107.0	44.0	90.3
기관계	-7,756.8	93.5	63.2	86.4	-210.2	17.3	11.1	158.6
(투신)	-5,723.7	-140.9	-41.0	-24.9	12.2	-4.1	-34.3	10.2
(연기금)	1,409.1	-77.4	68.5	38.9	4.7	-21.6	55.9	-9.4
(은행)	-1,003.8	-31.9	-4.3	-5.4	6.4	-0.6	3.8	-8.5
(보험)	751.6	44.1	18.3	28.2	0.7	0.7	-7.6	-3.8
개인	-6,009.9	-717.8	-726.6	-284.4	-16.4	-122.7	-67.0	-236.2
기타	3,436.5	75.5	7.0	10.5	-1.1	-1.6	11.9	-12.7

주: KOSDAQ 제외

##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3	2014	2015	10/17(월)	10/18(화)	10/19(수)	10/20(목)	10/24(금)
KOSPI	2,011.3	1,915.6	1,961.3	2,027.6	2,040.4	2,040.9	2,040.6	2,033.0
고객예탁금	14,211.8	15,842.5	22,695.6	21,509.7	21,512.1	21,145.6	21,322.7	20,971.7
(증감액)	-3,802.5	1,630.7	6,853.1	-43.0	2.4	-366.5	177.1	-351.0
(회전율)	29.9	34.0	28.8	30.8	30.9	31.7	32.4	30.6
실질예탁금증감	-10,123.5	-2,003.0	7,687.7	424.4	0.0	-331.7	-28.0	-341.6
신용잔고(KOSPI)	2,300.6	2,542.3	3,035.6	3,385.7	3,375.1	3,367.9	3,340.7	3,358.1
신용잔고(KOSDAQ)	1,893.2	2,537.5	3,491.2	4,322.2	4,316.7	4,313.0	4,306.9	4,303.8
미수금	92.9	117.6	151.0	129.1	108.5	107.6	98.1	108.1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0/14(금)	10/17(월)	10/18(화)	10/19(수)	10/20(목)
전체주식형	72,703	-8,063	-484	-145	-5	-22	15	-36
(ex.ETF)		-7,150	-402	-48	49	1	5	-82
국내주식형	55,434	-7,641	-375	-119	1	-35	15	-28
(ex.ETF)		-6,640	-293	-22	55	-12	5	-73
해외주식형	17,269	-422	-110	-26	-6	13	0	-8
(ex.ETF)		-510	-110	-26	-6	13	0	-8
주식혼합형	8,130	-95	-13	2	0	0	3	-10
채권혼합형	28,108	-2,655	-586	-15	-14	-6	0	-12
채권형	110,795	21,563	-385	-85	-78	35	-307	-84
MMF	119,403	24,943	11,465	2,605	437	257	574	-2,19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0/18(화)	10/19(수)	10/20(목)	10/21(금)	10/24(월)
한국	9,099	485	583	167	203	95	39	80
대만	13,315	319	333	87	191	88	-34	-
인도	7,454	-56	63	56	-44	51	-	-
인도네시아	2,507	-116	22	8	-5	18	1	-
태국	3,456	-330	-122	-68	-73	35	-16	-
남아공	-6,911	-301	31	17	-89	53	49	-
필리핀	704	-48	34	-2	22	9	5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분	2015년말	10/17(월)	10/18(화)	10/19(수)	10/20(목)	10/24(월)
회사채 (AA-)	2.11	1.78	1.78	1.78	1.80	1.81
회사채 (BBB-)	8.06	7.86	7.87	7.87	7.90	7.90
국고채 (3년)	1.66	1.35	1.35	1.35	1.38	1.39
국고채 (5년)	1.81	1.43	1.42	1.42	1.44	1.44
국고채 (10년)	2.08	1.62	1.61	1.61	1.63	1.61
미 국채 (10년)	2.27	1.74	1.74	1.76	1.79	-
일 국채 (10년)	0.27	0.05	0.06	0.07	0.05	-
원/달러	1,172.50	1,129.40	1,123.20	1,127.50	1,134.90	1,131.00
원/100엔	972.63	1,086.69	1,086.90	1,085.18	1,093.56	1,089.81
엔/달러	120.55	103.93	103.34	103.90	103.78	103.78
달러/유로	1.09	1.10	1.10	1.09	1.09	1.09
DDR3 1Gb (1333MHz)	1.00	1.20	1.20	1.20	1.20	-
DDR3 2Gb (1333MHz)	1.13	1.32	1.34	1.34	1.34	-
NAND Flash 16Gb (MLC)	1.46	1.74	1.74	1.74	1.75	-
CRB 지수	176.81	190.81	191.80	189.80	190.43	-
LME 지수	2,217.9	2,391.8	2,391.6	2,375.5	2,369.9	-
BDI	478	890	872	849	842	-
유가 (WTI, 달러/배럴)	37.04	50.29	51.60	50.43	50.85	-
금 (달러/온스)	1,060.00	1,258.20	1,269.05	1,271.65	1,266.05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7	18	19	20	21
美> 9월 광공업생산 MoM (0.1%, 0.1%, -0.4%) 日> 8월 광공업생산 MoM (1.3%, n/a, 1.5%) 유럽> 9월 CPI YoY (0.4%, 0.4%, 0.4%)	美> 9월 CPI MoM (0.3%, 0.3%, 0.2%)	美> 9월 주택착공건수(천건) (1047, 1170, 1,142) 中> 3분기 GDP YoY (6.7%, 6.7%, 6.7%) 9월 광공업생산 YoY (6.1%, 6.4%, 6.3%) 日> 8월 전체산업 활동지수 MoM (0.2%, 0.2%, 0.3%)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60, 250, 246) 9월 기존주택매매(백만) (5.47, 5.40, 5.33) 9월 선행지수 (0.2%, 0.2%, -0.2%) <b>연준 Beige Book 발표</b> 유럽> <b>ECB 기준금리</b>	유럽> 10월 소비자대지수 (-8.0, -8.0, -8.2)
24	25	26	27	28
美> 10월 마켓 미국 제조업 PMI (n/a, n/a, 51.5) <b>Fed Bullard 연설</b> 日> 10월 닛케이 일본 PMI 제조업 (51.7, n/a, 50.4) 유럽> 10월 마켓 유로존 제조업 PMI (n/a, n/a, 52.6) 실적발표> 韓 한샘	韓> 3분기 GDP YoY (n/a, 2.6, 3.3%) 美> 10월 소비자대지수 (n/a, 101.5, 104.1) <b>Fed Evans 연설</b> 실적발표> 韓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현대제철, 대림산업, LG하우시스, 스카이라이프, 대림씨엔에스 美 캐터필러, P&G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n/a) 9월 신규주택매매(천건) (n/a, 590, 609) 9월 도매 재고 MoM (n/a, n/a, -0.2%) 실적발표> 韓 현대차, POSCO, LG디스플레이, 롯데케미칼, GS건설, LG이노텍, 넥센타이어, 풍산, 롯데정밀화학 美 애플, 코카콜라, 테슬라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9월 내구재 주문 (n/a, 0.2%, 0.1%) 유럽> 9월 M3 통화공급 YoY (n/a, n/a, 5.1%) 실적발표> 韓 삼성전자, NAVER, 기아차, SK텔레콤, LG전자, 현대건설, 삼성전기, 만도, 현대위아, DGB금융지주, 이노션, 한전기술, 아이센스 美 아마존	美> 3분기 GDP 연간화 QoQ (n/a, 2.1%, 1.4%) 10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n/a, n/a, n/a) 日> 9월 실업률 (n/a, n/a, 3.1%) 9월 전국 CPI YoY (n/a, n/a, -0.5%) 유럽> 10월 소비자대지수 (n/a, n/a, n/a) 실적발표> 韓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KT, 삼성카드, BNK금융지주
31	1	2	3	4
美> 9월 개인소득 (n/a, 0.4%, 0.2%) 9월 개인소비지수 (n/a, 0.6%, 0.0%) 日> 9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1.3%) 유럽> 10월 CPI 근원 YoY (n/a, n/a, 0.8%) 3Q GDP SA YoY (n/a, n/a, 1.6%) 실적발표> 韓 아모레퍼시픽, 삼성SDS, KT, 미래에셋, CJ제일제당	韓> 10월 CPI YoY (n/a, n/a, 1.2%) 10월 수출 YoY (n/a, n/a, -5.9%) 10월 닛케이 제조업 PMI (n/a, n/a, 47.6) 美> 10월 마켓 제조업 PMI (n/a, n/a, n/a) 中> 10월 차이신 제조업 PMI (n/a, 50.4, 50.4) 日> <b>BoJ 기준금리</b> (n/a, n/a, -0.1%) 10월 닛케이 일본 PMI 제조업 (n/a, n/a, n/a) 실적발표> 美 화이자, 켈로그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n/a) 10월 ADP취업자 변동(천명) (n/a, 160, 154) 유럽> 10월 마켓 유로존 제조업 PMI (n/a, n/a, n/a) 실적발표> 韓 이마트, LG전자, 팬오션, 하나투어 美 엘러간, AIG, 타임워너, 쉐일, 푸르덴셜, 매트라이프,	美> <b>FOMC 금리 결정</b> (n/a, 0.5%, 0.5%)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9월 내구재주문 (n/a, n/a, n/a) 유럽> 9월 실업률 (n/a, n/a, 10.1%) 실적발표> 韓 GS리테일, 인터로조, 쿠팡 美 페이스북, 크래프트 하인즈, 라스베이거스 샌즈	美> 10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n/a, 150k, 156k) 10월 실업률 (n/a, 4.9%, 5.0%) 9월 무역수지(십억달러) (n/a, -41.5, -40.7) 유럽> 10월 마켓 유로존 종합 PMI (n/a, n/a, n/a) 실적발표> 韓 메리츠증권, 종근당, 난방공사 美 시만텍, 스타벅스,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식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